

며 撞座도 없는 略化된 느낌을 준다. 上下帶가 뚜렷치 않고 다만 上帶部에 圓圈內의 梵字가 配置되었고 鐘腹의 四乳廓內에 九乳頭周緣은 八瓣의 蓮華紋으로 彫飾하였으며 乳廓間에는 圓形頭光이 있는 菩薩立像이 있어 都合 四驅이다. 鐘體에는 三行의 銘文이 있으니 그全文은 乾隆十七年壬申「季春日籌鐘六」十斤新建也이다. 乾隆十七年은 英祖二十八年(一七五二年)으로서 李朝後期인데 前述한 天順元年銘 銅鐘과 優劣이 잘 對照된다 할 것이다. 實測値는 (cm)

全高 五三 上徑二九
甬筒高八·五 口徑四一

四、禁口와 雲板

禁口는 徑八一·七cm로 大作에 屬한다 할 것이다. 表面 重圈外側四處에 蓮華紋圓帶內의 梵字를 配置하고 그 사이마다 八葉의 小蓮瓣彫飾이 있다. 側面에는 「乾隆三十五年庚寅六月日興陽楞伽寺金器鑄成」의 銘文이 있고 連하여 點線으로 「桐裏山泰安寺大鐘」이라 있으니 이것은 곧 楞伽寺의 禁口가 泰安寺로 移管된 후 點線으로 陰刻한 것이다. 雲板은 通式의 裝飾的인 形態인데 表面周緣一行에 「道光十一年辛卯七月日泰安寺雲板造成也」란 銘文과 梵字가 四處에 陽刻되었다. 道光十一年은 純祖三十一年(一八三一年)에 該當된다. 實測値(cm)는 高三七·三 徑二七이다.

資 料

瀋陽出土의 至正四年銘 金鼓

坪 井 良 平

最近에 高麗靑銅鼓(盤子 飯子)가 瀋陽市郊外에서 發掘된 記事를 보았다. 高麗文物의 滿州方面에의 進出을 알 수 있는 興味있는 事實로 생각되는 바 그 大要는 아래와 같다.

一九六三年十一月 瀋陽市東郊 渾河南岸의 石廟子村에서 一括의 元代 銅器가 出現하였다. 이들은 村東方 道路의 排水溝를 改築中 地表下 八cm에서 出土되었는바 總數三十二件으로서 모두 廟宇에서 使用되던 法

器였다. 그중이 金鼓는 靑銅鑄造로서 面徑三三·五cm 側高九cm. 扁平中空인 바 一面外區에는 纏技牡丹, 內區에는 飛舞하는 雙鳳이 새겨졌으며 他一面外區에는 卷草 內區에는 雙龍拾珠가 새겨졌다. 또 各面中房에는 十二, 八, 一의 珠文이 있으며 側面에는 中心의 合縫線上에 二十cm의 距離를 두고 三個의 半圓形縣鈕가 있는데 그 高는 一·三cm이다. 側面下部에는 切口가 있어 長十七cm, 幅五·二cm 側面에 보이는 三行의 刻銘은 다음과 같다.

至正四年四月初八日勸善道人張敬道明發願施納(?)金鼓一部 定戎寨善現寺(以上一行)

同願施主朴終甫金雲山(以上一行)

刻標造成匠 洪廣大(以上一行)

定戎寨善現寺는 元, 明志에 記載가 없다. 瀋陽城隍元至正十二年重修碑中에 城西에 常新寨이 있다는 記載가 있고 附近地名에도 李石寨 國公寨 班家寨 등의 이름이 남아 있다. 定戎寨善現寺는 아마도 附近에 있었을 것이나 元의 兵火로 亡하고 그 때 이 銅器도 埋沒되었을 것이다.

元代의 瀋陽에는 漢族以外에 朝鮮 女眞 蒙古族이 있었던 사실은 元史에 詳細하므로 銘文中에 보이는 「朴」「金」「洪」等은 朝鮮人의 이름일 것이다. 發表原文에는 簡字가 많아 解讀이 充分하지 못한 點도 있으나 우선 高麗飯子의 新發見의 事實만이라도 通知하는 바이다. (干崇源·鄭明「沈陽市郊出土一批元代銅器」文物一九六六年四號)

(註) 이一文은 七月二十八日付 坪井氏의 鄭永鎬幹事와 書信內容을 抄譯한 것인바 이 金鼓樣式은 高麗通式의 片面型이 아니고 兩面型(日本의 鐃口)이었던 듯하다. 이같은 高麗遺品은 國內에는 없고 日本에 唯一點(至治二年銘海州藥師寺禁口—京都智恩寺所藏)이 傳하고 있을 뿐이다.

考古美術 卍一三

◎ 文化財委 第一分委(五次)

八月 六日 開催. 出席委員 金庠基 李弘植 金斗鍾 金允基 襄源 黃壽永. 討議